"의료비 90% 건보료 보장… 연내 센터 256곳 개소"

文 대통령, 치매센터 방문

"700만 65세 이상 10% 치매환자 사회·국가 함께 어르신 돌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8일)을 맞이해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동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열린 치매어르신 관련 간담회 때 "우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시군구에 모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며 "대부분 정식 개소를 했고 일부는 연말까지 모두 정식 개소를 마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00만명쯤 되는데 그중 10%(약 70만명) 정도를 우리 정부는 치매환자라고 생각한다"며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걱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작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난 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크게 늘고, 치매 환자들 본인부담 치료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향후 치매전문병원-치매전문병동-치매전문요양원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정책으로,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치매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종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옥화 할머니(치매어르신 배우자)는 "남편을 돌보느라 우울증에 걸렸다가 가족교실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며 "(또) 기저귀 등 물품도 지원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이 카네이션을 만든 후 각각 치매어르신들에게 달아드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찾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9월29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가족카페 등을 신설했다. 이 센터는 '관내 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대상 주 1회 인지프로그램(색칠하기-스트레칭-일상동작 훈련)'이라는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 김태년, 노웅래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서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김경협, 윤관석, 노웅래,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노·김 '3파전'… 나경원 대항마 누구?

〈이인영·노웅래·김태년〉

文정부 성공, 총선 승리 등이 공약
당 소속 128명 중 65표 얻으면 당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내년 21대 총선까지 당을 이끌고, 제1야당 수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을 상대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공약과 판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모두 수도권 지역 3선 중진의원이다. 이들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1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 민생입법 성과 창출 등으로 공통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방식과 구상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띤다.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이인영 의원은 "변화와 통합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인을 선전한다. '386 운동권'뿐 아니라 친문재인계 의원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당 주도성을 높이고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장외투쟁 등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출마선언 당시 "한국당의 극우정치에는 족보가 없다"며 "박근혜 탄핵에 대해 극렬히 맞선던 이른바 '가짜 태극기 세력'의 정치적인 포악성과 폭력성에 근거해 시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나 원내대표마저 극우정치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내대표가 돼 한국당의 극우적 경향을 막고,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운동 전부터 국회 내 세미나·토론회 등을 다니며 '얼굴도장'을 찍어왔다. 노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해 민생입법을 조기처리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무쟁점 입법안과 협상 가능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국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이 협상 가능 법안으로 제시한 입법안은 20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소멸시효 만료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공정추심법'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노 의원은 7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의 협상 처리를 위한 원내교섭과 별도로 야당과 '민생입법 트랙'을 가동하겠다"며 "한국당도 조속히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능함'을 강조하는 김태년 의원은 주류에 속한다. 친문계 의원에 속하며 이해찬 당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산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요직을 거치며 당내 협상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비주류계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내년 총선을 두고 공천권을 휘두를까 염려하는 모양새다.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당 지도부를 이끌며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의 경우 운동권 출신으로 다양한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공정한 공천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또 노웅래 의원은 당내 정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색채가 없어 계파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중 과반(65표)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유력 중진의원 간 3파전인 만큼 한 번에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文, 美 트럼프와 北 미사일관련 의견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통화는 지난 4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한반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에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얘기가 이뤄졌다"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관련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중 이번 통화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이러한 통화는 한쪽의 일방적인 제안보다 서로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청년한식당 20곳에 국산식재료 지원

농식품부,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은 올해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사업자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식당은 서울, 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20곳으로 앞으로 국산 식재료 탐색기간을 가진 후 새로운 한식 조리법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개발된 음식은 해당 한식당에서 실제 판매될 예정이며 조리법은 가정 내에서는 물론, 한식당 영업장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힘 쓸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일몰·재추진 추진

노동부, 사업평가·개선방안 보고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올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세종=최신웅 기자